

로컬리더

군산시 신규공직자 대상 지역 향토기업 지엽공장 견학

군산시가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지역 경제발전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향토기업을 견학하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한다.

군산시는 오는 28일 신규공직자 직무적응 교육 프로그램 일환으로 한국자립군산공장 견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신규 임용자 80명을 대상으로 군산지역의 대표 향토기업인 한국자립군산공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및 기여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자 마련됐다.

홍순경 한국자립 대외협력단장은 "이번 견학이 한국자립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알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영등1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익산시 영등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영등1동 주민센터 4층 회의실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했다.

영등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풍물 등 13개 프로그램에 500여명의 수강생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 발표회에는 고전무용 등 11개 프로그램에 195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

발표회는 풍물반의 호남무동악을 필두로 에어로빅반의 공연과 중국어반의 중국어노래, 오카리나반 공연, 유희당당을 주제로 한 심버건강댄스 공연과 소풍공트를 선보인 영어회화교실, 요가의 기본동작을 선보인 요가교실, 라틴댄스를 선보인 댄스포즈, 한량무를 주제로 한 고전무용반 공연에 이어 마지막에는 노래교실의 '보야 같은 친구' 노래를 함께 부르며 흥겨운 끝을 맺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의회 박정희의장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체험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은 지난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서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장을 받고 국민보험건강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정희 의장은 김덕용 군산지사장으로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추진, 공단의 2025 뉴비전 내실화 및 공단의 기능과 역할, 현황실명을 듣고 군산지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민원실에서 민원사항을 직접 점검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건강보험의 주요업무를 직접 체험 하는 등 시민들이 건강보험공단에 바라는 점을 전달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희 의장은 "체험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와 제도에 대해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 건강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건강보험공단과 협력을 통해 군산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경찰서, 내년 1월 말까지 교통사고 예방 특별단속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 근절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은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이다.

군산경찰청은 11월 한 달을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12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일제 음주단속 실시 기점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 시간과 장소를 불문해 심야뿐만 아니라 출근시간대와 낮에도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동봉 서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음주운전은 언제든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감소 추세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장애인콜택시 개선 시급

예산부족 이유로 야간·휴일 운행 하지 않아 장애인들 불편 호소

연간 수억 원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군산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야간 및 휴일 운행을 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2일 지체장애2급 박모(72·여)씨는 "일요일 장애인 콜을 예약하려 했으나 예산이 부족해 일요일은 운행을 하지 않더라는 답변에 깜짝 못하고 집에 있어야 했다"고 호소했다.

군산시는 중증장애인과 고령자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17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기본요금은 일반택시보다 50%를 할인 받아 1,4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군산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토요일은 4대만 운영하고 있으며, 법정공휴일과 일요일 및 야간 운행은 하지 않고 있어 중증장애인과 특히, 투석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처럼 교통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콜택시는 휴일과 야간 운행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군산시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

시는 근로자들이 야간 또는 휴일 근무를 할 경우 법적근로기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게 되어 이에 따른 초과 임금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장애인들은 장애인 콜택시 도입 취지에 맞게 야간과 휴일까지 운행 시간을 연장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나운동에 거주중인 지체장애2급 김

모(62·여)씨는 "장애인은 일요일에 움직이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는 것"이라며 "최소한 저녁 8시까지도 운행하고 휴일에도 예약제도를 통해 장애인 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한 장애인 복지 전문가는 "근무자들의 격주 근무 또는 근무시간 조정과 장애인콜택시 운행 자격이 가능한 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야간 운행과 일요일 운행도 가능하지만 장애인 편의를 위한 지자체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도비 예산에 맞춰 시 예산을 확보하다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면서 "위탁업체와 근무시간 변경 등을 논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장애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지역 곳곳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 줄이어

타타대우상용차·군산시자원봉사센터 사랑의 연탄나눔사업 전개

군산지역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이 이어지고 있어 훈훈함을 주고 있다.

타타대우상용차는 지난 25일 월명동과 소룡동에 찾아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타타대우상용차 80여명의 직원들은 월명동 및 소룡동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33가구에 연탄 10,000장을 직접 배달해 겨울철 난방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타타대우 직원들은 지속적인 봉사나눔으로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있으며, 연탄 나눔 봉사활동도 8년째 이어오고 있다.

김관규 대표이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사랑의 연탄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채정룡)는 B&D하이텍과 함께 지



난 12일부터 22일까지 관내 거주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016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나눔사업을 전개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디지털농업인대학 총동창회(회장 장인식)를 비롯해 특전동지회군산지회(회장 한강희), 푸른솔배드민턴클럽 회장 김영식) 등 봉사단체 10여명이 동참해 수송중 육서면 성산면 대어면 등 저소득 17

가구에 총 5,100장의 사랑의 연탄을 전달했다.

채정룡 이사장은 "올해도 연탄나눔 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나기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취약세대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식품벤처창업기업 선발대회' 쿠엔즈버킷 최우수상 수상

익산시가 최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식품벤처창업기업 선발대회'에서 (주)쿠엔즈버킷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주관으로 시행된 이번 식품벤처창업기업 선발대회는 미래 글로벌 식품기업의 가능성을 보유한 중소 식품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발굴 시상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행사로 지난 9월 공모되었으며 11월 1일부터 4일까지 참가자 접수를 진행했다.

선발과정은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총 16개 지원팀 중 아이디어 및 기술 개발의 타당성 및 가능성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 기술에 따른 인력구성 및

인력 확보 계획의 타당성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9개 팀을 선정하고 2차 발표심사를 통해 3개 기업에 대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발표심사에서는 참가, 들개를 활용한 프리미엄 식용유 생산 및 부산물 자원순환 산업화를 통한 글로벌 식재료 시장 진입 전략을 선보인 (주)쿠엔즈버킷에게 최우수상이 돌아갔으며 농수산물 건조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한 유니온테크가 우수상, 우리농산물을 활용하여 핵가족시대에 맞는 식생활 아이디어를 선보인 흠족서비스가 비전상을 각각 수상했다.

본선 시상 외에도 본선 진출자 중 1·2차 평가접수가 총 배점 70% 이상

인 기업에는 식품벤처센터 입주자격을 부여했다.

이들 기업은 입주 후 신제품 개발 및 초기 투자비용 등의 절감을 위해 기업지원시설과 연구 장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선발대회 수상기업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혜택을 얻은 식품 기업들이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의 롤모델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연구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을 통해 이들 중소식품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원광대병원 산부인과 김병륜·박성남 교수팀 다빈치 Si 단일공 로봇 수술 성공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이 충청, 호남 최초로 다빈치 Si 단일공 로봇 수술에 성공했다.

원광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산부인과 김병륜 교수 박성남 교수팀이 자궁근종 환자인 이모씨에 다빈치 Si 단일공 로봇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로봇수술은 기본적으로 복부에 4개의 구멍을 내어 진행하지만 단일공 로봇 수술은 배꼽 주위에 2cm 내외의 구멍을 하나만 내어 시행하는 수술법으로 수술 후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은 장점이 있다.

단일공 로봇 수술은 여러 개의 구멍을 뚫는 수술에 비해 회복 속도도 빠르고 주변 조직의 손상도 적고 출혈과 감염의 위험성도 낮아 수술 후 회복과 기능 보전 면에서 우수하다.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수술법이다.

이로써 충청, 호남 지역민들도 최소한의 절개로 임상적 결과들이 우수한 단일공 로봇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08년 충청, 호남지역 최초로 다빈치 로봇 수술을 시행한 원광대병원은 올해 9월 단일공 수술이 가능한 다빈치 Si 로봇을 도입했다.

산부인과 김병륜 교수는 "젊은 여성일수록 생식 기능 보존과 미용적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번 환자도 차후 출산을 계획하고 있고 복부에 흉터가 남지 않기를 희망해 단일공 로봇 수술을 시행했다"며 "이전에 수술 경험이 있는 환자여서 수술 부위 조직 유착이 심했으나 단일공 로봇을 이용, 섬세하게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로봇 수술기를 이용하여 수술 할 경우 수술 부위를 3D 화면으로 10배까지 확대하여 보면서 손 떨림 없이 수술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다.

원광대병원 박승철 로봇 센터장 역시 "충청, 호남 지역민들에게 단일공 로봇 수술을 시행 할 수 있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다빈치 Si 로봇을 이용, 산부인과, 외과, 비뇨기과 등 여러 진료과 영역에서 수준 높은 의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 내년 예산 8881억원 편성, 시의회 제출

군산시가 내년도 예산규모를 8881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57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311억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를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288억원(3.9%), 공공질서안전 153억원(2.0%), 교육 56억원(0.7%), 문화·관광 431억원(5.7%), 환경보호 378억원(5.0%), 사회복지 2,748억원(36.3%), 보건 129억원(1.7%), 농림해양수산 1,004억원(13.3%), 산업·중소기업 281억원(3.7%), 수송 및 교통 627억원(8.3%), 국토 및 지역개발 284억원(3.8%) 등이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 전체예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2,748억원(36.3%)을 편성하는 등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재원을 배분했으며, 시급성 없는 신규 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지역 현안 및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육화천 재해예방사업 51억원, 군장부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4억원 ▲문화관광·장애인체육관 건립 45억원, 은파관광지 개발 15억원, 근대마을 조성사업 12억원 등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실생활과 밀접한 복지 분야부터 우선 고려했다"며 "최근 조산업 등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관광산업 활성화, 일자리창출, 주민소득증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시민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농기센터, 안개초 드림송 시범사업 평가회

익산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는 지난 25일 전북농업기술원에서 육성 보급한 안개초 드림송 보급 시범사업 평가회를 도 기술인 연구사 및 화훼농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포 김기식 농가 포장에서 실시했다.

안개초는 그동안 평야지에서는 고온에 의한 기형과 발생과 같은 생리장애 때문에 재배가 어려워 남일 농공과 화훼단지에서 재배되어왔다.

다양한 소비패턴과 기호도에 따라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들이 그동안 선호돼 왔었고 부담되는 로얄티는 종묘비 증가로 이어져 재배능가에 커다란 부담이 됐다.

이에 도농업기술원 정동춘 박사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고온에 강한 안개초 '드림송'을 개발해 2013년부터 평야지 실증시험을 익산 배성환 농가와 꾸준히 실시한 결과 7~8월 고온기에 두 무늬가 생장 개화하며 화색이 밝고 관상 기간이 외국품종보다 2~3일 더 길어 시장반응도 좋고 재배도 용이한 드림송 보급에 성공했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최근 화훼 시장에서 형형색색 옷을 입힌 건조화와 염색화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 안개초의 가격 경쟁력도 더불어 상승하고 있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의 개최

익산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가 지난 25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악취 저감을 위한 머리를 맞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선발대회 수상기업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혜택을 얻은 식품 기업들이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의 롤모델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연구시설 및 장비, 인력 등을 통해 이들 중소식품기업과 예비창업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익산시는 올해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준수하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악취모니터링원 야간 순찰 및 무단악취포집기 운영 등 단속체계를 정비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앞으로도 일관된 행정으로 시민의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며, 악취에 대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올해 8월부터 1년 간 악취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이재영 부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단속을 꾸준히 해 나갈 것"이라며, "악취는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관리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악취는 감지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